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기독교시민역량교육 프레임 모형 연구*

이진원(한국교회다음세대전략연구소/소장)

wonipaul@gmail.com

한글 초록

포스트모던시대의 파편화된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더 급격한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사회는 코로나 이전 보다 더 다양한 갈등사회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새로운 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팬데믹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이 시대가 갖는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문제들에 대해 공공의 과제로 인식하고 기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기독교시민교육의 소통역량이 보다 실천적으로 모색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시민으로서의 소통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기독교시민으로서의 공적정체성 재확립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변혁적인 소통역량에 대한 기독교시민역량교육 모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교육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공적인 인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적신학의 자리에서 연구되었던 신학적 이론과 기독교교육 이론들을 통하여 기독교시민역량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하여 입문교육으로 제자-시민의 공적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교육을 다층면적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이론적 기초로 수정 보완 적용하여, 기독교민 소통역량 교육의 실천적 모형을 새롭게 모색한 것임.

인 교육영역별로 설계하고, 공적 신앙의 실천적 역량으로 기독교민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방법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며 기독교민으로의 공적 사명의 자리를 인식하는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입문교육의 틀과 시대적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독교민의 변혁역량으로서의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의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독교민으로서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레임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 주제어 》

기독교민, 소통역량, 역량교육, 정체성, 프레임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선 지 불과 20여 년이 막 지날 무렵에 전 세계는 바이러스 질병인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 2019)로 인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은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과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팬데믹 이전의 역사 가운데 인류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노멀(normal)의 일상적인 시계를 새로운 뉴노멀의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로 돌려놓았다(유경동, 2020).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파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처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시대적 위기로 인해 한 국가회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요구와 도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서문기(2020)는 코로나19 시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둔 공감 사회로의 전환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사회의 각 영역에서 배양하고 새롭게 설계하는 노력과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초기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 대인적인 갈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념 및 지역 갈등과 함께 계층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교육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공적정체성 재확립하고 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틀을 모색하고 실천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사회와 시대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삶 속에서 공공의 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 민주시민을 양육하는 것과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사명이다(장신근, 2009a).

본 연구는 공공의 선을 함께 실천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공헌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갈등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인의 공적과제로 인식하도록 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인 소통능력 함양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는 기독교인의 의식을 바로잡는 교육으로 공적정체성 재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다. 팬데믹의 위기로 초래된 문제들을 공적 과제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사명과 자세로, 공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정체성 재확립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두 번째 과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위기 속에서 신뢰 사회로의 회복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공감과 포용의 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역량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다. 사회적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변혁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실천 능력으로 요구되어지는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모

색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의 현실 가운데서 절실히 필요한 기독교인으로서 공공의 사명을 인식하고 공적 과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소통역량교육에 대한 필요를 요구받고 있는 것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민으로의 정체성 재확립의 인식적인 측면과 새로운 능력 함양을 위한 실천적 측면을 큰 틀에서 연계하여 통전적인 관점에서 융합적인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기독교시민역량교육의 틀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민주시민교육이나 기독교시민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기독교시민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I.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시민교육의 시대적 필요

본 장에서는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시대적 위기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에 대하여 상황적인 측면에서 먼저 사회적인 위기를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과 공적인 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독교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 상황 고찰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의 재난상황에 직면했다.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은 생명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파괴하였고 세계 경제 전반적인 침체와 붕괴의 위기로 위협하고 있다(한국자치학회, 2020). 또한 팬데믹의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위기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사회적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고 예측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전염병같이 전체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멘탈데믹(mentaldemic)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을 경고한다(이은환, 2020).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우울감은 개인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로 표현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 5월에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분석한 이은환(2020)의 보고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와 정신적인 상태를 분석한 결과 전 국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8%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재난 스트레스의 수준이 과거의 메르스나 세월호 침몰 등의 다른 여러 재난들로 인한 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외에도 사회의 구조적인 차원에까지 심각하게 파고들고 있다. 또한 위기가 질병의 위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어 극심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고, 적대적인 상황이 실제적인 위협에까지 이르고 있어서 일명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장원호 외, 2019; 서문기, 2020 재인용).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는 경제, 정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심각한 ‘갈등사회’와 ‘위기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파고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

2.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필요성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위기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육과 신앙생

활의 영역에까지 강력한 변화를 요구받게 하였다. 이제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전과 이후가 송두리째 달라질 것이며, 교회의 교육과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김성중, 2020). 유재덕(2020)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초래하게 된 위기와 영향들로부터 교회와 교회교육이 자유롭지 않았음에 주목하면서 바이러스 방역과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교육이 공교육과는 대조적으로 거의 해체 수준에 직면한 현상을 지적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신학적 성찰 및 신앙과 온라인 예배, 체계적인 신앙교육과 목회방식과 재정 문제까지도 망라하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이른 바 뉴노멀(New normal)과 교회교육의 향후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교회교육은 탈체계화와 디지털 문화와 교육체계 등의 급변하는 여러 상황의 변화들을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여야 하며, 어디에서도 공인할 수 있는 교육적인 처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택은 변화에 유연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과거에 갖고 있던 교회교육의 견고한 구조들로부터 벗어나서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의 가치들을 새롭게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교육 신학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유재덕, 2020). 김성중(2020)도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의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필요와 시대적인 필요까지도 함께 채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코로나19의 위기는 기독교교육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데 참여하고 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세우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장신근(2009a)이 교회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하여 공교회와 공

적 신앙 관점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교육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 그는 기독교교육이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 특성으로 편안하게 스며있는 위기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인식의 변화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요구하였다. 또한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 통전적 기독교인역량함양의 교육방향을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적인 시대적 위기에 대한 과제 인식은 일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서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전한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와 시대적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의 문제를 기독교인의 공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하는 실천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구현하는 기독교교육의 노력과 필요성을 재발견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사회적 위기에 대해 공적인 과제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적이고 참여적 실천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교육을 실천하는 모두가 공공의 기독교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스도인 모두의 시대적 필요교육이라는 필수 교육적 차원에서의 통찰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로 비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의 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의 의미 뿐 아니라 교회 스스로도 개혁을 위한 민주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육이기도 하다(장신근, 2009a).

김난예(2011)도 위기 속에서 기독교인의 책임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세계시민은 인류 사회가 직면하게 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전 지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제자직 교육과 시민직 교육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세상과 함께 수행하여 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의 문화를 변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하며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Ⅲ. 기독교시민교육을 위한 신학적 토대

본 장에서는 기독교시민교육의 이론적인 근거를 모색하기 위하여 시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이 공적인 과제를 인식하는데 제시한 견해들을 통해 신학적인 함의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러한 신학적 통찰을 통하여 기독교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태도를 성찰하는데 신학적 토대를 찾는 작업과 함께 기독교시민교육이 시대적으로 응답해야 할 유의미한 함의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먼저 공적 신학의 기초적인 주창자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태도를 분석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제안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이론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의 신학적 제안들은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이 시민교육으로의 공적인 태도를 필수로 다루도록 요청 받는 것과 공적 교육을 통한 역량 함양의 가능성 및 공적 함의들을 제안해 줄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의 악순환 되는 현실적 부조리 속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공적 신학의 자리를 발견하고 위기 가운데에서 희망의 신학으로 전환하게 한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신학적인 제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신학적 통찰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찾고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관계적인 역할로서의 실천적 책임에 대한 제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시민교육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공공 신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적 관점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공공 신학적

인 이해와 함께 공적 신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공적 신앙의 자세와 방향을 찾는 데 의미 있는 성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라인홀드 니버의 공적 태도에 대한 신학적 함의

라인홀드 니버(2003, 9-34)는 개인적인 도덕에 대하여 각 개인들이 행위의 문제에 대해 결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보다 앞선 자리에 두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들은 원래 동정심의 척도 혹은 그와 동일한 이해심을 부여받았고, 개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성적 능력들은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확대할 수가 있어서 이기적인 요소들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제거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갖게 되는 정의감은 더욱 더 순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는 개인들의 도덕적 훈련의 필요성과 함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니버의 신학적 견해는 본 연구가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기독교민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중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공적 인식과 태도와 함께 선의의 감정으로 공감하는 훈련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이해에 앞서서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상호성의 자세인 포용하는 훈련의 가능성을 찾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편 니버는 인간 개인은 공의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회나 집단에 소속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니버의 견해에서 개인들이 종교적으로 갖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개인들이 이루게 되는 공동체의 집단적인 규모가 가지게 되는 단점들과 한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인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한계성의 단면들을 다 시금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교회 역시도 죄인들의 모임이고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재인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시민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출발점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교육에 적용하여야 할 부분이다.

요컨대 니버는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통해서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집단에서의 행동의 태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정의를 찾아서 수립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어느 한 집단 가운데 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흐름에 따라 집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변질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정의와 공동체로서의 사회가 갖게 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정의가 함께 양립하게 되는 방향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공정한 태도와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니버는 개인적인 도덕 훈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의의 감정과 상호성의 태도가 개발되어야 어떤 공동체도 그 생활 속에 통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독교시민교육이 공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인 개개인의 도덕적인 태도와 자세를 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또한 선의의 감정으로서의 공감과 상호성의 태도로서의 포용이 개발되고 훈련되는 역량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공동체의 생활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니버의 신학적 의견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 기독교시민교육을 위해 우리가 기독교교육의 핵심 내용과 관점 안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공적인 신앙 훈련과 공적인 신앙과 함께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덕적인 감정과 상호성의 태도를 다루는 능력으로서의 역량을 다루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동시에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소통능력을 함양시키는 기독교시민역량교육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2. 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함의

김명용(2014, 11-15)은 하나님 나라 공적 신학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을 20세기 후반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신학적인 근거들은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저서인 『희망의 신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저서에서 몰트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독교인들의 소명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학은 공적인 신학 또는 공공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트만(2002, 343-345)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곳에서야 비로소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인 관점은 진정한 공동체로의 의미가 충만한 곳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의미와 자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인간적인 친근함과 따스함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시달린 인간들 개인의 불안과 고통을 평화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고 고향이 되어주는 것에 대한 자리매김을 실제적인 희망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을 위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이 세계 속에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재조명하고 강조한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가진 책임과 임무를 실천해야 하는 것과 함께 이웃 간에서도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의무이다(Moltmann, 2002, 348-349).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의 본질과 목적은 자기 자신의 생활 안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존하게 되는 실존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사명

과 행동양식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세계를 향하여 파송됨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으로만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교회의 생존과 실존은 그 봉사의 실천에 전적으로 달려있기에 그저 교회를 위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즉, 몰트만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세계를 위한 공동체가 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고 주장한 몰트만(2002, 351-352)의 신학적 견해에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세상과 사회를 향한 섬김과 실천으로서의 공적인 자세가 더욱 적극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몰트만의 신학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는 위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의 의미로 자리매김하며 나아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확장해가는 것과 미래적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교육은 창조적인 제자직과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인 종말론적 기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각과 사명의 고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몰트만은 공동체를 섬기는 창조적인 제자직과 보편적인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현재적 종말론을 희망으로 제시해주며,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김도일, 2016).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교육을 위한 공적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신학적 기초를 몰트만이 제시하고 강조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소명과 책임에 두고 세상에 대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신학적인 의의를 두고 진행한다. 몰트만의 교회를 위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며 교회는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 신학적인 통찰은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인교육의 장을 세우고 교육을 수행해야하는 필수적인 사명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웃을 향한 봉사의 실천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역량교육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기독교인교육의 주제와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

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시민교육의 사회적인 책임은 세상 속의 모든 인간 개인들과 세계를 향한 기독교인의 적극적이고 공적인 제자직과 소명으로서의 시민적 사명 수행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몰트만의 신학적인 작업에 기초하게 된다.

결국 몰트만의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통찰은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시민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 포기되지 않는 희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인 삶으로 실천해 가는 관계적이고 공적인 소명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신학적 함의를 두고 있다.

3. 기독교시민교육에 대한 공공신학적 함의

사회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공적인 과제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적인 책임을 인식하는 공공신앙이나 교회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공공의 책임과 역할의 자리를 모색하는 공공신학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기독교교육이 노력하고 응답해야하는 책임적 역할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가 모색하고자 하는 기독교시민교육의 보편적 필요성과 기독교시민교육이 수행해야하는 기독교인의 공적 역량으로서의 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해 공공신학적인 토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대로 20세기 후반의 신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어진 공공신학은 기독교인의 소명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여러 차원에서의 가치들을 재개념화 하여 공공의 선을 향한 노력들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의 신앙이 본래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교회의 역할이 본래적으로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시민 단체들을 통하여 보다 활성화 되어 전개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적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대 사회적으로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에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공공신학에의 관심과 논의는 한국교회가 사적인 공동체화 되어 가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며 교회가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적인 성격의 회복과 공적인 신앙의 양육 등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회에서의 신뢰의 회복을 모색하는 중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장신근, 2007).

나아가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공적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적인 흐름은 기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공공신학의 의미와 맥락을 찾아가는 노력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기독교시민교육과 기독교시민교육을 통한 역량교육의 탐구도 이러한 공공신학적인 의미에서 공적인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기독교시민교육이 신학적 토대로 삼고 있는 공공신학에서 추구해 가는 공적 신앙이란 기독교인의 온전하고 통전적이며 성숙한 신앙을 의미한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자아 정체성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제자이자 시민으로의 통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균형을 이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을 말한다. 이러한 공적 신앙은 함께 공생하고 함께 공존하는 삶의 장에서 상호적인 상생의 자리로 변혁시켜 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능력을 부여하는 신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적 신앙에 있어서의 '공적'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특징 지워지는 신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신근(2009a)은 공적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은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해가는 노력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역적인 차원으로는 기독교시민교육을 통하여 시민사회에 봉사할 기독교 시민을 양육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지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기독교시민을 양육함으로써 시민사회에 공헌하는 과제도 역시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당면

한 문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차원의 노력으로 공적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교육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으로 공공신학의 흐름 안에서 기독교교육이 공적으로 감당해야하는 공적인 사명과 함께 기독교의 진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폐쇄적으로 갇혀있는 독백이 아니라 이미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세상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김난예, 2009).

IV. 기독교시민 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토대

본 장에서는 공적 신학의 관점에서 모색한 신학적 함의를 기초로 하여 기독교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공적 신학에서 나타난 기독교인의 정체성 재개념화와 공적 인식에 대해서 기독교교육적 이론을 통하여 기독교시민으로의 공적 사명 수행을 위한 통전적 정체성을 살펴본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독교시민의 실천적 역량 함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갈등과 단절의 위기시대를 공감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소통역량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입문교육으로서의 공적 정체성 재확립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기독교시민이 시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이다. 기독교 시민교육을 위한 공적인 정체성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만의 이론을 기초로 한 제자직과 시민직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장신근, 2009). 존 콜만(John Coleman, 1999, 102-104)이 제시한 제자직의 개념은 초규범

적인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신앙인의 도와 실천의 개념으로 정의되었으며 시민직의 개념은 사회에 속한 사람이 가진 권리와 책무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독교시민의 공적 정체성은 온전한 기독교 시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직 개념과 제자직 개념의 각각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제자이자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융합개념을 지닌 통전적 정체성을 뜻한다. 김도일은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자직은 시민직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고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제자이자 시민의 온전한 기독교인 정체성의 모범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도일, 2011, 356).

파커 파머(Parker J. Palmer, 2010, 35)도 교육에 있어서 우리들의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온전한 시각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곧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와 우리가 속한 세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전적인 온전한 시각은 기독교인교육에 있어서 공적 정체성의 재확립 교육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며, 제자직을 공적 사명으로 더욱 더 충실하고 깊이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며 동시에 세계를 향한 관계성과 소통의 능력을 회복시켜 나아가도록 하는 교육에 이론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공적정체성 교육이 정체성 재확립의 입문교육으로 바르게 교육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제자직 교육에 부가적인 것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독교인교육에 있어서 제자직에 대한 교육은 시민직에 대한 교육과 구별되어지고 긴장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으며 제자직과 시민직 서로가 상호 강화시켜준다는 통전적 관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정체성은 온전한 시각에서 시민직과 제자직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지 않고 기독교교육적으로 균형감 있는 개념과

통전성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지역학교에 있어서도 제자이자 시민으로의 공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통전적 정체성의 개념은 기독교지역학교의 교육원리들인 교육 목적,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적인 영역과 삶 가운데서의 기독교적인 확신을 가진 충실한 제자임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도전을 주는 통전적 교육으로의 중요한 핵심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장신근, 2009a).

2. 변혁역량으로서의 소통 능력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시대적 파편화로 인한 시대적 난제들에 이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위기들로 인해서 또다시 거듭 이전의 상식의 터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상식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의 사회 공동체와는 다름을 표방하는 파편화의 위기에 더해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단절과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등장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의 현상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하여 공감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현대 사회에서 분리와 단절,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사회적 위기들은 기독교교육의 모든 현장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사회 및 미디어매체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소통의 역량이다. 따라서 현시대가 맞고 있는 단절과 분절화의 급격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독교교육적 응답으로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진리와 사랑 그리고 생명의 통전성을 회복하며 재창조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독교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신학의 전 분야(Theologia)에서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통전적 과제이기도 하다(이규민, 2016, 2-3).

또한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소통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강

력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이미 공적신앙의 핵심적인 자세로도 요청되고 있는 기독교적인 역량으로 시대적 특성을 넘어서서 언제나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필요한 능력이다. 장신근(2009b, 290-294)은 한국교회가 먼저 낮은 자세로 세계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섬기고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로부터의 차가운 눈총이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제라도 교회가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길을 먼저 떠나가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성숙한 의미에서 공적인 신앙의 개념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만남의 신앙적 차원과 함께 세계를 향한 기독교인의 청지기적 책임이 함께 통합되어 있어서 세계와 이웃에 대한 원칙이 있는 개방성과 공감에 기초한 연대성 및 평등한 관계성과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둘 수 있는 가역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미 공적 신앙 안에 내재되어 특징되어지고 있는 개방성과 공감과 연대성 및 관계성과 가역성 등은 소통이 갖는 원리와 요소이다. 기독교시민역량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 신앙의 성숙한 차원에서 의미하고 있는 소통의 능력을 시대적 위기상황이 요구하는 소통의 역량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구체화된 기독교 교육적인 작업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음 장을 통하여 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기독교시민교육의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모색하고자 한다.

V.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기독교시민역량교육 프레임 작업

김난예(2011)는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기독교시민교육은 하나의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계발하는 교육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제자로서의 의식을 더 깊게 느낄수록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시민의 태도와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을 과제로 하여, 앞선 장들에서 고찰한 이론적 토대 위에 기독교시민의 역량함양교육을 위해 정체성의 재확립 교육과 변혁역량으로의 소통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교육프레임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시민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이 균형 있게 수행되려면 위기에 대한 기독교인 정체성교육으로 공적 신앙의 과제인식과 사명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입문교육과 기독교시민의 변혁적인 역량으로서의 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작업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적 정체성 재확립의 입문교육을 위한 교육영역별 프레임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흐름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무게중심이 변화되었던 정체성으로의 시민직과 제자직에 대한 개념 인식에서 오늘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기독교시민의 공적 정체성으로 균형 있게 재정립하고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입문교육으로 선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영역별로 통전적인 교육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리아 해리스(Harris, 1997, 12-15)는 『교육목회 커리큘럼』(Fashion Me A People)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통전적인 시각으로 ‘교육적인 소명’(Educational Vocation)과 ‘목회적인 소명’(Pastoral Vocation)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유기적인 공동체적 소명을 제안한다. 이처럼 공적 관점에서의 기독교시민교육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적인 요소와 함께 상호 보완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루는 교육의 자리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의 교육과 목회의 유기적 프레임으로 정체성 교육을 구조화하는 것은 초대교회적 목회의 구조를 적용하고 성서적인 틀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도들의 가르침(Didache)을 받으며, 서로 교제(Koinonia)하고 떡을 떼며, 섬기며(Diakonia), 오직 기도하기(Leiturgia)를

힘썼다”는 성서적 증언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마리아 해리스가 주장한 커리큘럼을 가진 목회구조, 입체적인 목회가 존재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이규민, 2016, 51-52). 특별히 마리아 해리스가 제시한 코이노니아, 레이 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교회목회의 5가지 기능에 전체를 종합한 영역까지 6가지 영역에서 기독교인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에 적용하여 공적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교육의 큐브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체적 측면의 적용은 본 연구에서 확장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공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데 다양한 교수이론 및 교수 방법의 다 측면적인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통찰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입문교육은 정체성 교육을 역량교육으로 조명한 프레임이다. 이는 파편화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본적인 토대로 새롭게 규명되고 필수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정체성 교육으로 간과되지 않고 실천적으로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기독교인 역량함양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체성 교육을 입문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베이직 프레임 교육으로서의 기독교교육의 5가지 측면인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영역에서 기독교인역량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하였다.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5가지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정체성 교육은 통전성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시민직과 제자직의 온전성 형성을 위한 교육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온전성을 형성하는 교육이다. 기독교인의 공적정체성 교육은 육면체 큐브프레임으로 공적 과제의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의 정체성 재확립 교육으로서의 입문교육을 수행한다. 특별히 전제교육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단계적인 특징과 실천적인 기독교교육의 공적 과제 수행으로서의 신앙입방체적 틀을 가진 5

가지 정체성 교육영역의 입방체 큐브형 프레임으로 균형 있게 수행되어진다.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신앙을 입방체로 표현한 적이 있다. 입방체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신앙의 다측면적으로 통전적인 역량교육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방체의 개념을 적용하고, 공적정체성 교육의 5가지 영역은 마리아 해리스의 초대교회 모형의 기독교교육 이론을 토대로 하였다. 따라서 제1 영역은 케리그마 영역에서의 입문교육 정체성 입방체 교육이다. 제2 영역은 레이투르기아 영역에서의 공적정체성 교육이다. 제3 영역은 디다케 영역에서의 기독교시민의 공적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교육이다. 제4 영역은 코이노니아 영역에서의 공적정체성 입방체 교육이다. 제5 영역은 디아코니아 영역에서의 공적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입방체 교육이다. 제6 영역은 정체성 재확립교육의 종합적인 영역이다. 위기 사회의 새로운 난제들을 공적과제로 인식하고 기독교인의 사명을 기독교시민답게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이나 공동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기독교시민의 공적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교육을 입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2.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원리 프레임 작업

“21세기는 공감의 시대이다.” 공감의 시대 작가 리프킨(Jeremy Rifkin)은 인간은 물질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김난예, 2013). 공감능력이 발달한 아이는 타인에게 인간애를 느끼지만 공감능력이 결핍되면 갈등 해결, 이타심, 평화 추구는 물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도 없어진다(Kohn, 1991, 496-506; 김난예, 2013, 100 재인용). 지금 이 시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감을 원한다. 나와 비슷한 것,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직관적으로 공감하여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감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

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의사소통은 물론 배려가 있을 수 없다(김난예, 2020). 따라서 공감과 이해하는 능력으로의 포용의 원리를 통해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소통 능력은 공감력과 포용력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먼저 공감된 마음에 서로를 허용하고 서로의 사건에 관여되어지며 포용성을 가지고 대화할 때 실천적 소통 역량이 함양된다.

소통역량은 공감력과 포용력의 두 가지 교육원리를 통해 교육할 수 있으며, 먼저 공감력은 개인과 개인 안에서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힘으로써, 학습자의 자신과 관계하는 기독교시민교육은 우선적으로 신앙과 삶이 연계를 통한 변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학습자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며, 그리고 표현되는 교육이어야만 한다. 또한 소통역량을 위한 포용력은 학습자와 타인들과의 ‘간인간적(Interpersonal) 관계적 포용’에 또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공적 신앙의 실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참된 기독교 시민의 실천적 역량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공감과 포용의 소통역량을 갖고 긍휼히 여기고, 깊이 배려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형시키는 상호관계적인 소통의 힘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로 공감적인 소통 교육 안에는 먼저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결이 안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이런 이해의 틀결이 안에는 본인은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이해의 대상인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강문규, 2016).

2단계로 포용적인 소통 교육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든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의미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말을 주고받는 것, 포용적 대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서로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본래대로의 자신을 올바로 알리려는 포용적인 소통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때 서로 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진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포용력이 중요하다(김현숙, 2004, 53).

종합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인으로 변혁적인 역량함양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천적 영역으로서 소통역량교육 프레임의 2가지 단계는 공감과 포용의 소통원리를 적용하여 각각의 단계에 집중해서 역동적인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원리에 따른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교육역량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졌다. 역량교육프레임의 교육이 수행되는 기독교민교육프레임은, 첫 번째 프레임인 제1 원리로서의 공감의 원리와 제2 원리로서의 포용의 원리가 반복적인 써클 프레임(Circle frame)으로 수행됨을 통해 소통역량의 교육이 진행된다.

공감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협력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마음에 완전히 공감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감정이나 정서 그리고 경험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공감과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공감과 자기도 그렇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의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과 시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김난예, 2014).

포용의 단계에서는 서로가 허용되고 서로의 마음의 답이 허물어지는 것은 포용을 경험하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포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이규민, 2009, 125). 따라서 포용의 단계를 통해서서 서로가 소통되는 상호소통이 중요하게 일어난다. 포용의 단계 교육을 통해 창출되어지는 소통역량은 그 대상이 사람이어도 되고, 사건으로서의 특별한 주제이어도 가능하다. 기독교민교육에 함께 참여한 사람 들어오도 되고,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나 참여한 학습자들 사이에서의 포용의 교육 경험을 통해 소통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

시대적 과제를 기독교인으로서의 공적 과제로 품고 사회적인 변혁에 참여하는 기독교인 소통역량 함양을 수행하고자 할 때 전제되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정체성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통역량교육의 교육원리 프레임에서 운영되는 단계교육은 공감과 포용의 각각의 교육원리에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의 머리와 가슴과 표현의 기독교교육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머리로서의 공감과 포용, 가슴으로서의 공감과 포용, 표현으로서의 공감과 포용의 체계적 교육경험을 통해 소통역량으로 이끌어내는 씨클형 교육프레임을 적용하였다. 제1단계 공감의 원리와 제2단계 포용의 원리 프레임을 통해 배양되는 소통능력은 파머가 말한 대로 가르침이 존재하는 모든 자리로서의 새로운 역량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단절을 극복하는 공감력과 포용력의 능력을 지닌 소통이 이루어지며, 갈등의 위기를 지양하고 공동체를 공감으로 전환하게 하는 소통의 능력이 함양된 기독교인 역량교육이 수행되는 것이다.

3.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기독교인역량교육 프레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독교교육적 과제로서 기독교교육이 실천성을 갖고 온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함께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의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정체성 재확립의 입문교육과 변혁적인 역량인 소통교육이 선택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연계된 융합프레임으로 설계되어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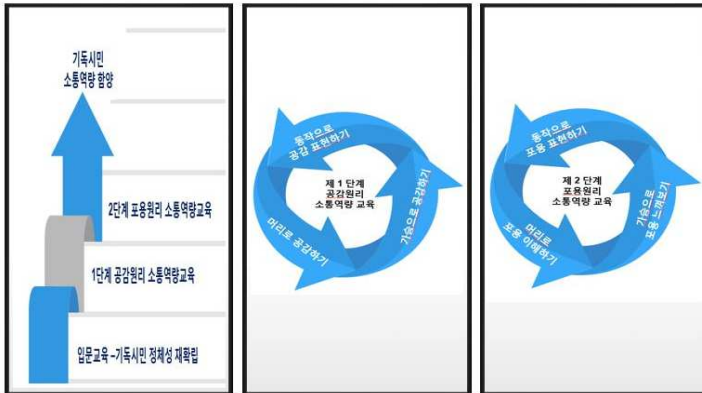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입문교육으로서의 공적 정체성 재확립 교육을 위한 영역별 입방체 프레임이다. 이는 시대적 위기 상황과 함께 코로나19로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 일상이 된 위기 사회에 대하여 공적 신학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시대를 조명하고 기독교인의 자리에서 공적인 사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시민의 입문교육이다. 제자직과 시민직의 통전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온전한 기독교시민 정체성의 개념을 재정립한 후, 공적정체성 재확립의 다측면적 영역으로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에 제자로서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시민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시민의 공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독교시민의 입문교육으로 구체화하여 다측면의 역량교육 영역에 적용하는 입방체적인 큐브형 교육프레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즉, 입문교육의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케리그마와 레이투르기아 그리고 디다케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5가지 영역과 종합영역으로 총 육면체 큐브의 균형 있는 정체성 교육을 통해 기독교시민의 공적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공적 사명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입문교육의 정체성 재확립의 큐브프레임에 이어서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1, 2단계 공감과 포용원리를 적용한 각각의 써클 프레임을 제안한다.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원리로서 공감의 원리와 포용의 원리를 두 기동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원리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반복적인 써클 프레임으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 소통 능력을 실천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입문교육에 영역별 육면체 큐브프레임 교육과 소통역량 교육의 1단계 공감의 원리교육과 2단계 포용의 교육원리를 각각 적용하여 기독교시민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프레임의 운영을 각각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시민 역량프레임을 교육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현장에서 기독교시민 역량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의 틀을 제시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기독교시민 역량함양교육은 정체성과 소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김도일(2016)이 제안한 온전성을 추구하는 교육에서의 확장성과 같이하여 개인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까지 나아가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인 위기와 난제를 인식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정체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공적 과제를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신앙을 위한 시민의식의 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적용에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기초적 교육의 틀 모형이다. 또한 소통역량의 쉼표 프레임을 공감과 포용의 원리를 구분하여 조직하였으므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영역에서만 기독교인교육이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색과 공감과 포용의 교육원리를 통한 소통의 역량은 실천적인 참여형 교육영역에서 통전적인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또 다른 여러 사회적 공동체들까지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레임이라고 여겨진다(김도일, 2016).



[그림 1]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기독교인역량교육 프레임

시대적 소통역량함양을 위한 기독교인 교육프레임을 연구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들은 나아가 두 가지 면에서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첫째로, 그것은 기독교인 역량함양의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목적과 교육방법과의 관계와 지향점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

다. 둘째로, 그것은 기독교민교육과정에서 입문교육인 기독교민 정체성 재확립과 실천적인 소통역량 함양 교육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요청되는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역량들이 시도되어지고, 나아가 열린 기독교민교육으로서의 실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공적 정체성 재확립 교육을 입방체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영역에서 통전적으로 형성하는 것과 기독교민 역량함양을 여러 가지 측면이 교차하고 있는 역량교육 프레임으로 본다면 기독교민교육의 목적과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독교민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기독교교육과 연결시키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Ⅵ. 나가는 말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난립하는 변화의 파고 속에서 특별히 단절과 갈등사회로의 위기 현상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감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의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과 탐구가 요청되어지는 시대적 필요에 의하여 기독교교육적 응답으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시대적인 과제를 기독교인의 공적과제로 인식하는 공적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민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사명을 인식하고 특별히 기독교민으로서의 소통 능력과 태도 함양을 위한 기독교시민역량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의 틀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서 신앙과 삶의 분리와 단절을 야기하는 이원화된 불균형적 교육을 지양하고, 기독교 신앙의 공적사명을 실천하는 정체성 재확립의 인식교육과 소통능력의 변혁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공적 사명을 수행하는 배움의 길로서 기독교민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기독교인의 사명을 실천하는 기독교민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의 공적 사명을 인식하기 위한 선행교육으로 공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교육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독교민 교육체계로서의 역량교육 프레임의 모색하였다. 먼저 기독교민의 공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영역을 탐구하여 제자이자 시민의 통전적인 정체성 재확립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즉, 공적 정체성 큐브프레임 6가지는 케리그마, 레이트루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와 종합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큐브 입방체형 영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민의 변혁역량 교육으로서의 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원리의 틀로 1단계 공감의 원리와 2단계 포용의 원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방법인 머리와 가슴과 동작의 써클 프레임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독교민 역량교육체계를 정체성 인식의 입문교육과 실천적 능력 함양의 교육으로 연계하여 실제적으로 탐구하였고,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이전에 기독교교육 학자들을 통하여 선연구되고 제안된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시키거나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기독교민 역량함양 방법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위기를 공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독교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의 이론적 토대는 신학적이고 기독교교육적인 시각으로 조망하였다. 특별히 시대적인 영향력 가운데 반응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시대적 위기에 집중하여 통전적 기독교민 역량함양을 모색함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큰 흐름의 줄기 가운데 공적 신학의 선연구들의 기초가 된 라인홀드 니버와 위르겐 몰트만 및 공적 신학의 토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공적 신앙과 공공신학의 측면에서의 사회변혁적인 기독교교육적 과제에 대한 제안으로서 기독교민의 역량함양 교육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수행교육프레임을 제안하게 되었다는데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적 신학과 신앙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기독교민의 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프레임을 살펴보고, 신학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공적 정체성 재확립과 소통역량 교육의 구조적 원리와 실천적 방법을 적용하여 기독교민의 역량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틀을 통전적으로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소통역량 교육프레임은 기독교민 역량함양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공적 정체성의 재확립과 소통능력 함양의 통전적인 역량교육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더해진다.

또한, 제자교육 중심이나 시민교육 중심의 특징적 고착화로 굳어져 버리기 쉬운 기독교교육의 자리를,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더욱 집중하여 기독교교육이 책임지고 도전해야 할 공적 사명의 영역임을 찾아내고 역량교육과 연계하여 재인식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통전적이고 다측면적인 기독교민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마치며 새로운 기독교교육과정에 기독교민 역량함양을 필수적인 실천적 교육으로서 포함하고 교회와 가정의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독교민의 역량함양 교육의 단계적 프로젝트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독교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역량교육의 가능성을 향후 더욱 확장 연구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16).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신학과 실천**, 51, 461-499.
- 김난예 (2011). 기독교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교회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7, 383-420.
- 김난예 (2013). 공감과 공감 결핍 치유를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3, 91-119.
- 김난예 (2014). 현대인들의 영적 공감과 공감적 학습. **기독교교육논총**, 37, 25-51.
- 김도일 (1998).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도일 (2011). **온전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김명용 (2014). 세상을 바꾼 신학, 희망의 신학 50년, 몰트만 신학의 공헌에 대한 연구. **희망의 신학 50주년 장로회신학대학교 몰트만 초청 강연회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김현숙 (2004).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서문기 (2020). 한국 계층갈등의 지형과 공감사회 :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 197-208.
- 유경동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신앙과 과학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신학사상**, 189.
- 유재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 이규민 (2016). **포스트모던 시대의 통전적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이규민 외 6인 (2009).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곱 주제**. 서울: 장신대기독교교육연구원.
- 이은환 (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5, 1-25.
- 이형기 (2008). 벤과 몰트만의 공공신학 비교연구.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제3회 정기 논문 자료집**.

- 장신근 (2007). 공적 파이데이아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교육. **장신논단**, 29, 275-307.
- 장신근 (2009a). 교회의 민주시민교육, **기독교교육논총**, 21, 109-152.
- 장신근 (2009b). **창조적 교회교육 네비게이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한국자치학회 (2020).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교육의 과제와 전망. **월간 공공정책**, 10, 178.
- Parker J. P. (201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종태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사. (원저 1993 출판)
- Nieber, R. (2003).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남정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1932 출판)
- Harris, M. (1997).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9 출판)
- Moltmann, J. (2002). **희망의 신학-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대한 연구**. 이신건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원저 1964 출판)
- Mary, B. (1999), **시민직과 제자직을 위한 교육**. 김도일 역,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9 출판)

Abstract

A Study on the Frame Model of Christian Citizenship Competency Education for Improving Communication Competency

Jin Won Lee
Director, IKCN

Without overcoming the fragmented characteristics of the postmodern era and solving many difficulties as it is, our society is passing through a time of crisis more than ever because of Corona 19, a more rapid social disaster. As the crisis caused by the pandemic is prolonged,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diverse than before the coronavirus, and effort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are required to cultivate new capabilities to overcome social conflicts.

This study started with an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Christian civic education to fulfill the public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s by recognizing the social and situational problems of this era as a public task amid in the crisis and change of the pandemic. Therefore, a meaningful work was undertaken to find an educational ministry practice frame for essential core competencies and transformative transformation competencie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times as education to cultivate and reinforce competencies as Christian citizens. First, the theoretical basis for competency education for Christian citizens was reviewed through the theological and Christian education theories that were studied in the situation of public theology about the public percep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s on the issues of the times. Furthermore, through this study, education to establish and cultivate the public identity of disciples-citizens as a Introductory education is explored in a multifaceted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and educational

methods were searched for cultivating communication competencies of Christian citizens with practical capacity of public faith.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n educational ministry frame of identity cultivation, the core competency of recognizing the position of the public mission as a Christian citizen while living as a disciple of God's kingdom in the world and an educational frame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ommunicate as a transformative Christian citizen's transformative competency to carry out public tasks was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an educational ministry convergence frame was proposed for cultivating core competencies and transformation competencies for Christian citizenship education.

《 **Keywords** 》

Christian-citizenship, Communication competency, Competency education, Identity, Frame.

- 투고접수일 : 2020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12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26일